진리의 등불을 밝히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무명에 덮여 있는 중생들에게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진리의 등불을 밝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밝혀야 할 등은 지나간 삶 속에서 지었던 자기의 허물에 대한 참회의 등불, 생명의 길을 밝게 열어 주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을 켰으면 합니다.

자비광명 온누리에 가득하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성스럽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원력의 실천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과 연민이 곧 자비이며, 부처님은 연민과 자애를 마음의 바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쁨을 나눠 줄 수 있는 자비희사의 삶을 끊임없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심으로 복밭 일구자

국제선불교조계종 대승정 목탁 스님



나를 높이는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실로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게 되고 남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지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을 편안한 세계로 인도하면 大福田 곧 복밭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등 밝혀 삼독 토하세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어느것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가. 선(善)과 악(惡)은 대체 누가 정하는 것인가? 춘색은 세상을 덮었는데 지난해 낙엽은 아직도 뒹구는구나. 감추어진 것은 허물이 아니며 드러난 것만 죄로구나 오호라 실상무상(實相無相)이요.

불립문자(不立文字)가 열반묘심(涅槃妙心)이거늘. 봄비에 춘초(春草)가 뇌성(雷聲)을 토하니 불탄일(佛誕日) 등촉(燈燭) 밝혀 삼독(三毒)을 토(吐)하세. 나무아미타불

나부터 닦아 세상을 이롭게

(사)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雨寶益生滿虛空(우보익생만허공)
衆生隨器得利益(중생수기득이익)

신라시대 의상 스님 지은 '법성게'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의 비가 가득 내리지만 중생은 자신의 그릇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품을 먼저 닦아야 이로움도 더욱 잘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 자신을 닦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라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우리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라는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행복도 내가 만든 내 것이요, 나의 불행도 내가 만든 내 것임을 알고, 자신이 자신의 유일한 안내자라는 진리를 깨우쳐야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허물이 없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훈계하고 제어하여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여 스스로 맑아지면 이 세상은 더불어 맑아져 행복해진다는 솟아오르는 샘물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합시다.

중도와 불이로 세상 맑혀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불교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스스로 깨우쳐서 성불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공부하는 교학과 마음을 깨우치는 선학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철학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이며, 또 하나는 둘이 다르지 않다는 불이(不二)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 할때 우리는 보살행을 행하고 성불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집과 반목의 옷 벗자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부처님은 무명의 중생을 가엽게 여겨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가여운 중생들 곁에 언제나 어디에나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몸을 나투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존귀함을 잊고 천하고 잊고 천하고 박하게 살아가는 중생이 가여워서 오늘도 부처님은 마음아파 하십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에는 다함께 다시 태어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등불 밝힘, 마음뿐이로다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남과 북, 군사 대립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세상에서 얼싸안고 춤추며 살아보세. 타인에게 널리 베풀고 인격적인 살며 어떠한 고뇌도 견디어 내고 참 삶을 더해 가는 정진(精進). 살면 마음을 비우는 그리고 생각의 실천으로 평화의 등불을 밝힙시다. 등불을 밝힘은! 무엇을 따로 어찌 구하겠는가? 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부처님은 온 법계에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佛身充滿於法界(불신충만어법계)
普現一切衆生前(보현일체중생전)
隨緣赴感靡不周(수연부감미불주)
而恒處此菩提座(이항처차보리좌)

부처님은 온 법계에 가득 찼으며 항상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네. 인연 따라 다다라서 두루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여기 보리좌에 계시네.

남북평화 불국정토 발원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 위에 불국정토를 실현코자 지혜의 밝은 등불과 자비의 큰 원력으로 오신 전 인류 정신문화의 거룩한 날입니다. 오신 뜻 받들어 모든 생명을 부처님 같이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생명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배달의 민족인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 속에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산가족이 수시로 상봉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물처럼 중생 환히 비추리

(사)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 스님



佛法傳燈大禪宗(불법전등대선종)
宗僧秉燭禪宗風(종승병촉선종풍)
燈傳相續世不滅(등전상속세불멸)
代代流通振祖宗(대대류통진조종)

부처님이 대선종에게 전한 등불 승려들이 불 밝혀 선종의 바람 일으키고, 이어받은 등불이 세세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흐르는 물처럼 중생들에게 환희 비추어 대대로 이어지게 하라.

나 자신을 바로 봅시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스님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는 영원하므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는 본래 순금인데 욕심이 심안을 가려 순금을 잡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심안이 열려 자기를 바로 보게 됩니다.

본래 갖춘 불성 깨닫자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人前爲過(인전위과) 後止不犯(후지불범) 시조시간(是照時間) 여월운소(如月雲消)

이전에 잘못이 있는 사람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사랑과 자비는 과거에 붙들리게 되면 실현하기 힘듭니다. 현재를 직시하는 사람만이 여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깨닫자.

평화 정착 기여하는 불자로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인류의 대광명(大光明)이시며 사생(四生)의 자부(慈父)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지금 우리 한반도는 영원히 풀리지 않던 분단의 실타래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주창하신 마음이며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편화의 밭을 일구는 역군이 되어서 참다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따라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불자가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불합시다. 석가모니불!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뜻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은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에서 '나'는 석가 자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개개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제방 불자여러분! 우리 모두 석가세존님의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다 함께 부처님으로 새로 태어납시다.

진실한 말이 주는 감동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진실한 말은 첫째가는 계율이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다. 진실한 말은 적은 것이라도 큰 것과 같지만 거짓말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경률이상〉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짓됨 없는 진실한 말을 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뱉는 나의 말이 상대방 가슴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한 마디 한 마디에 진심을 담아봅시다.

진리교법 일심 귀의하길

원융교단 대한불교조계산문 무문총림 대법주 보당 스님



부처님 설법의 핵심은 다름 아닌 고통 없고 걸림 없어 자재롭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지 3천여 년이 지나도 인간 중생은 소멸하지 않는다. 바로 부처님의 교법에 귀 기울이고 부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진리교법에 향하고 가르침에 일심 귀의하여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교법을 봉체하는 길이다.

해탈의 진리에 눈을 뜨자

(사)대한불교승가회 이사장 무공 스님



물속의 달을 건지려 하지 말고 성성하게 자기의 마음을 굳게 지킨다면 스스로 해탈의 진리에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진여인 허공은 높고도 텅 비었으니 지혜의 밝은 달이 휘영청 밝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기 마음의 경지를 통달하기만 한다면 푸른 하늘에 붉은 해가 만리의 허공을 훤하게 비춤과 같고 서늘한 맑은 바람이 온 천지에 가득함과도 같을 것이다.

참회하는 부처님오신날로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블 스님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모두가 기쁨과 환희로 이를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모두가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는 것은 부처님의 삶 자체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행복을 전합시다. 또 그 가르침을 되새겨 반성하고 우리 사회를 밝히는 주인공이 됩시다.

참된 진리는 밝고 영영하다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원장 무산 스님



참된 진리란 밝고 소소영영한 것이다. 법신은 상이 없어 텅 비고 비었으므로 망령된 생각과 모든 잡된 견해가 없어서 아주 고요한 경지인 것이므로 이것을 이르기를 부처의 성품이 휘영청 밝아 끝도 가도 없이 하늘에 통한다. 증득해도 증득한 것이 없고 잃어도 잃은 것이 없음이 참된 진리란 밝고 밝으며 항상하여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비등불 밝혀 탐진치 소멸을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이 일어나고 마음이 살아지면, 만물이 살아진다. 만약 부처님의 법을 전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하여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관불하여 신구의 삼업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가 가득하여 세상 일이 다 풍요로워 자기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광반조하는 삶을 살자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오르고 내림의 두레박 끈을 한 칼로써 끊고 끊는다면 참된 진리의 영롱한 이슬방울이 맺힐 것이며, 마치 푸른 하늘에 무심히 밝은 달빛이 교교할 때 그 속에서는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어떠한 분별도 없고 사사로움도 없으니, 이런 경지를 이름하야 자기의 성찰을 바로 찾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합시다.

중생 구제 원력 다시 세우자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지금 사회는 그 어는 때보다 갈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금, 이러한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데 불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사바세계의 중생 구제를 위한 원력을 다시 세워 부처님오신날을 새롭게 맞이합시다.

법은 뗏목과 같다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부처님오신날 경축합시다. 누구도 평화를 침해할 수 없다. 남산 소나무 푸르고 한강 물 유유히 흐른다.

不應取法(불응취법)이며 不應取非法(불응취비법)이니 法尙應捨(법상응사)어든 何況非法(하황비법)이랴. 바른 진리를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지도 말 것이니 내가 말한바 법이 뗏목과 같은 줄을 알라. 싯달타 태자가 왕의 자리를 티끌처럼 내려놓으시니 일체 우주가 평화롭고 천지가 태평하도다.

대광명 부처로 거듭나자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태어날 때는 무명의 업식으로 태어나지만 부처의 근본 종지는 누구나 그대로 여여하여 안과 밖이 따로 없음을 깨달으면 법신의 기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부처의 종자가 있습니다. 이를 덮고 있는 무명을 걷어내면 대광명의 부처로 다시금 나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계에도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보다 밝은 미래가 열리길 바랍니다.

매일이 부처님오신날처럼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구제중생을 위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지극한 마음으로 찬탄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삶은 유한하기에 삶이라 부릅니다. 삶이 무한하다면 죽음도 없기에 우리는 이를 삶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가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부처님오신날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 친지, 도반…. 내 주변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여기며 매일 진리를 향해 정진합시다.

함께 사회 아픔 치유하자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스님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어루만지시고 모두 부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용기를 일깨워 주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지혜로 어둠이 물러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을 때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진정으로 나툴 수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사회 아픔이 치유되고 행복한 날이 되도록 합시다.

佛緣을 감사히 여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得生人道難(득생인도난) 生壽亦難得(생수역난득) 世間有佛難(세간유불난) 佛法難得聞(불법난득문)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도 생명을 유지하기 또한 어렵다.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기 어렵고 부처님이 계셔도 가르침을 듣기가 어렵다.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수많은 생명 중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 중에서도 불자가 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 참 불자로 거듭납시다.

지혜와 자비의 봉축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입니다. 이는 불교정신을 짧게 요약한 '상구보리 하화중생' 으로 해석됩니다. 지혜 없는 자비, 자비 없는 지혜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로 지혜를 증득하고, 내 주위 삶에 지쳐버린 이웃을 위해 손길을 내밉시다. 가르침을 되새기며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선근공덕을 쌓는 인연이야말로 값진 삶이 됩니다.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환희의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올해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562년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중년신사가 주문할 때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하고, 자신이 만나야 하는 손님에게 존대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분별심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외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모든 존재가 존귀하다는 의미라는 것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아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제자 아난존자는 후일을 걱정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을 설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많은 불자들이 사찰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무언가를 성취하게끔 부처님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은 아닌지 '자등명 법등명' 으로 다시 살펴봅시다.

국민 희망 키우는 불교로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국민들에게 불교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교가 이제는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가풍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행가풍 회복에 있어서는 승단의 각 구성원 각자가 치열한 자기반성과 비판세력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수행정신을 다시 세워 한국불교가 새롭게 미래를 여는 부처님오신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연꽃 묻기 전에 연꽃 되라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성철 스님



깨달은 사람은 바람소리 물소리가 모두 부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없고 수행인은 자기의 팔식(八識)이 청정해야 하며 인간은 본래 무일물(本來無一物)인데 팔식의 무명에 걸려 여래지(如來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으며 연꽃을 묻기 전에 연꽃이 되고 연잎을 묻기 전에 연 잎이 되라 연꽃이란 건강한 정신이요 연잎이란 건강한 육체가 될 것이다.

참된 마음 근원 찾아가자

(사)대불교조계종 이사장 월성 스님



무심으로써 정신을 수양하고 무념으로써 안정을 얻어 한가롭고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서 본래의 참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모름지기 마음의 밭에다 알음알이인 식의 종자를 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이치란? 평등하고 또 평등하여 아무런 분별도 나지 않는 것이 곧 부처의 마음인 것이므로 마음은 지극히 맑고 맑기 때문에 이 자리를 청정법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평등 성품에 대소분별 없다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불교의 진리는 생사해탈을 말합니다. 한가득한 깨달음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커다란 진리 앞에는 대소분별이 없습니다.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참 공부이니, 이 마음의 진리를 다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미혹한 중생도 깨달은 선지식도, 진리의 앞에는 구분이 없는 도반입니다. 부처님오신날 대한민국이 깨달음의 세계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지혜 등불로 무명 밝히세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무명을 밝힌 지혜의 등불, 부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타올랐으니, 이제 우리는 부처님 삶과 말씀을 의지해 다시 이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무명으로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지만, 범부와 성인과 부처는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분별이 만든 것입니다.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짐하는 서원 속에 부처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수행자 본분 실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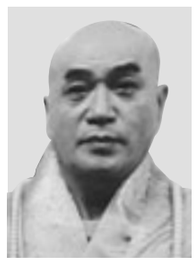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이사장 산수 스님



수행자의 도리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일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도리에 어긋난 행으로 인하여 중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수행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으리오. 우리는 입으로 진리의 참뜻을 전합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이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하는 이들이 진실로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 만듭시다

(사)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스님



본래(本來) 시법평등(是法平等) 무유고하(無有高下)라.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것은 '나' 라는 아만(我慢) 속에서 주변을 돌아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相)을 떠난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세상이 열리니 이것을 놓치지 말고 늘 깨어있음으로 정진하여 차별 없는 평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인생 점검의 계기로 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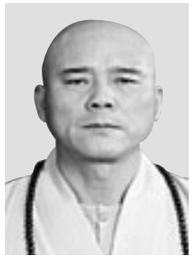
(사)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스님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삶에서 얼마만큼 진실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데 있어서는 차별상을 일으키지만 법신은 은현하여 오고감이 없이 온 누리의 광명이요 언제나 본체의 대기대용을 원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부처님오신날 해 봅시다.

중생구제 참뜻 깨닫자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아기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당안지 일체개고' 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귀하며, 그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주인공으로 존재해야한다는 최고의 선언입니다. 2천만 불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구제의 참뜻을 오신 의미를 깨달아 본래부터 갖추어진 우리 안의 지혜와 자비가 꽃처럼 피어나 나와 이웃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서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가치관 확립을

(사)대한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성종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 문명의 갖가지 병폐를 극복하고,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의 훈풍과 함께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와 번영이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관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신뢰의 사회 구축하자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우리 모두는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똑같은 존재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즉 우리가 우주공간속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부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주셨는데 우리는 불신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믿음부터 찾아야겠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해 가야할 것이다.

평화의 한반도로 만들자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2만여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 정진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이 이어지고 있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수봉행하며 새롭게 거듭나 삿된 견해를 물리치고 정견의 수행과 정진으로써 몸소 자비행을 실천하여 이웃에게 희망과 전법의 등불을 전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됩시다.

평화정토 위한 마음등불 밝혀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사회 전반에 평화의 분위기가 만연한 반면, 이념 간 갈등이 심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종교와 세대를 넘어 오늘날 이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불보살의 가피로 남북이 통일되고, 남북통일이 세계평화로 이어져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극락정토가 실현되기를 등불을 밝히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의 생일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



부처님은 중생구제를 위해 원력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부처님만 이런 사명으로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로서 이 세상에 왔으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사실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의 존귀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너와 내 마음이 부처

(사)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이사장 윤기순



너의 마음이 곧 부처이고 나의 마음 또한 부처이니 부처와 부처가 서로 상대하였으니 다시 어떤 마음이 따로 있겠는가? 마치 사람의 그림자가 물에 잠겨도 옷은 젖지 않는 것과 같고 대나무 그림자가 집 뜰을 쓸어도 티끌은 쓸어지지 않는 것과도 같고 그러므로 도(道)란?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현묘(玄妙)한 도리인 것이다.

불교 진리는 인과 법칙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전국중앙신도회장 윤을암



천지만물이 모두 인과의 이치에 있고 자리에 앉으면 일어설 것이며, 섰으면 누울 것이고 누우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이것이 곧 인과의 이치다. 법이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버려야 참 법이요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말하지 않을 것이니 생멸이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라.